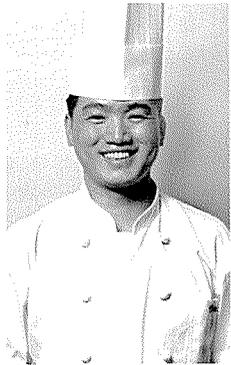


담당_김미선

Siba 2005 최우수상 상금 100만 원 박양규 셰프 기술발전기금 기탁



블랑제리드르방 둔촌점 박양규 셰프는 (사) 대한제과협회 중앙회에 기술발전기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지난 6월 8일 중앙회관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서 박양규 셰프는 “우리나라 제과기술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양규 셰프는 지난해 10월 열린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에서 초콜릿공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해 해외연수 비용을 부상으로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에 참가할 수

없게 돼 상금으로 지급된 15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이날 기술발전기금으로 중앙회에 기부했다.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 비롯한 기술사업 논의 한국리치 서흥표 대표 중앙회 방문

한국리치식품유한회사(이하 한국리치) 서흥표 대표는 지난 6월 12일 (사) 대한제과협회 중앙회를 방문하고 김영모 중앙회장과 제과업계 기술발전사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해마다 열리는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주체 단체인 협회와 후원업체인 한국리치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오는 10월 열릴 올해 제2회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대한제과협회는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빵빵데이’ 행사에 한국리치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리치의 주력상품인 샌크림을 활용한 빵과 케이크 개발에 제과업계 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Prism

출전 앞서 그동안 연습 결과 선보여

월드챔피언십 대표선수 최종 리허설



제3회 월드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에 출전을 앞둔 최문성·성명주·변경환 선수가 지난 6월 11일 출전에 앞서 마지막 리허설을 가졌다. (주)베이크플러스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리허설에는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을 비롯해 박찬회 부회장, 안창현 기술분과위원장, 홍종훈 기술지도위원장, 서강현 기술분과위원, 정영택 기술지도위원 등 협회 및 업계의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가해 지난 6개월 동안 선수들이 갈고 닦은 결과를 확인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영모 회장은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선수들이 연습기간 동안 보여줬던 만큼 대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데서 세계 제과인들이 우호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챔피언십의 참뜻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결전을 앞둔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날 챔피언십 대표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한 협회 및 업계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라”는 격려와 함께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기술적인 충고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Siba 2005 현장에서 선발된 최문성·성명주·변경환 선수는 오는 7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피닉스에서 열리는 제3회 월드페이스트리팀챔피언십에서 프랑스, 일본, 미국을 비롯한 세계 10개국 제과인과 실랑·초콜릿공예, 앙트르메, 앙트르메 글라세, 프티가도, 디저트 접시, 초콜릿 봉봉 등 다양한 제과종목에서 5만 달러의 상금이 걸린 그랑프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펼치게 된다. 챔피언십 선수단은 지난 11월 첫 번째 훈련을 시작으로 팀매니저를 맡은 안창현 기술분과위원장, 대회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정영택 기술지도위원의 지도 아래 지난 7개월 동안 맹훈련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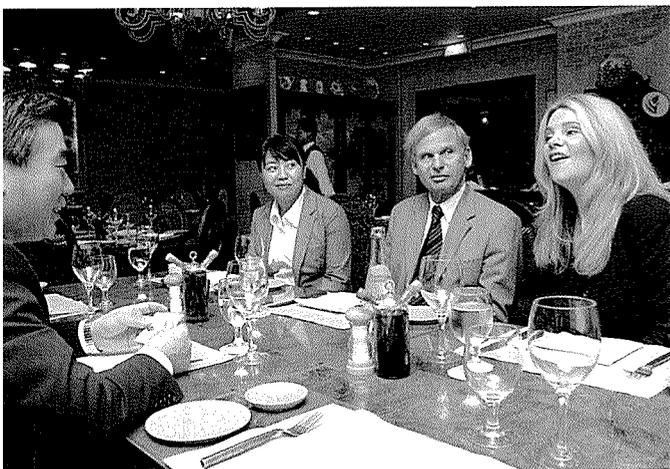
호두 수입관세 인하 등 관련 현안 논의

캘리포니아호두협회 임원진 정찬회동

(사)대한제과협회와 캘리포니아호두협회는 지난 6월 16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2회 전국호두제품경연대회에 앞서 정찬을 같이하고 한국 베이커리 업계의 호두 활용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정일석 사무총장, 캘리포니아호두협회 마셜 맥널 마케팅 이사, 손란 한국지사장을 비롯해 캘리포니아 호두생산업체 ‘보르게스’ 사(社) 윌리엄 D. 캐리에르 대표, ‘다이아몬드’ 사(社) 밥 리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찬에서는 45%나 되는 호두의 수입관세를 아몬드 등의 다른 견과류와 같이 8%대로 떨어뜨림으로써 우리 베이커리 업계의 부담을 줄여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함께 역량을 모아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김영모 회장은 캘리포니아호두협회가 지난 3월 중앙회 세미나실 구축기금으로 1만 달러(한화 1천만 원)를 기탁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Local News News

담당_김미선

신제품 및 마케팅기법 개발 계획 마산시지부 제29차 정기총회



마산시지부(지부장 정창국)은 지난 4월 18일 마산시 리베라호텔에서 제2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마산지역을 대표하는 10여 명의 내외빈을 비롯해 7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해 자리를 빛낸 가운데 난해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을 인정받고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짓는 자리였다. 정창국 지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신제품 개발과 고객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마케팅이 이뤄진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2006년도 기존영업주위생교육 동시 개최 안양시지부 제22차 정기총회



안양시지부(지부장 남기석)는 지난 5월 11일 안양시 만안구 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제22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안양시청 허수영 위생과장을 비롯한 지역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내외빈과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남기석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회원업소 모두가 기술·마케팅·서비스 면에서 앞선 경쟁력을 갖추는데 협회 차원에서 다함께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안양시지부는 이날 정기총회와 더불어 식품위생법 등을 주제로 2006년도 기존영업주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체육대회로 우호증진 및 지회발전 양천지회 과우친목회 춘계단합대회



서울양천지회(지회장 주재근) 과우친목회는 새봄을 맞아 지난 5월 24일 양천구 계남공원에서 40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춘계단합대회를 개최했다. 체육대회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서울 양천지역 제과업계가 서로 우호를 다지고 오랜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쇄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천지회 주재근 지회장은 이번 친목대회의 취지에 대해 "지역의 제과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구와 족구 등으로 친목을 다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해 다함께 발전을 이루자는 뜻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서울양천지회는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가하는 친목행사를 통해 지회의 단합과 발전을 꾀할 계획이다.

신임 지부장에 이주영 지부장 선출 김해시지부 제18차 정기총회



김해시지부(지부장 이주영)는 지난 6월 7일 김해시 내외동에 위치한 가야뷔페에서 제1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지부 발전에 공헌한 우수회원들에게 중앙회장상, 공로상, 경남지회회장상, 지부장상 등을 표창한데 이어 지난해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을 인정받고 2006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어 열린 지부장 이·취임식에서 양종우 전지부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이주영 씨를 새로운 김해시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이주영 지부장은 "어려운 업계 현실을 뜻을 모아 지혜롭게 헤쳐가자"면서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김해시지부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제품과 마케팅 접목한 새로운 콘셉트의 회원 교육 인천광역시지회 월드컵 공동마케팅 세미나

인천광역시지회(지회장 배인필)는 지난 6월 8일 인천광역시지회 세미나실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드컵 공동마케팅 세미나를 실시했다. 인천광역시지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월드컵을 베이커리 업계의 또 다른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 실천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중앙회 기술분과위원장이자 인천광역시지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는 안창헌 기능장이 월드컵 시즌에 맞게 축구공의 이미지를 살린 다양한 종류의 빵과 케이크를 만들어 회원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얻었다. 세미나에 참가한 회원 전원에게는 월드컵 시즌에 점포 윈도우에 내걸 수 있는 플래카드를 제작해 월드컵 관련 제품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미나에 참가한 회원들은 "기존의 이벤트데이 위주가 아닌 제품과 마케팅이 접목된 새로운 콘셉트의 세미나가 점포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